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직업가치관, 간호사이미지가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

주현정
가야대학교 간호학과

The Impact of Nursing Students' Emotional Intelligence, Professional Values, and Nurse Image on Nursing Professionalism

Hyeon Jeong Ju
Department of Nursing, Kaya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감성지능, 직업가치관, 간호사이미지가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조모형 연구이다. 연구대상은 C시와 G시에 소재한 일 대학의 간호학과 1학년과 4학년 349명이며, 자료수집은 2023년 3월 27일부터 4월 14일까지 실시하였고, SPSS/WIN 23.0과 AMOS 23.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직접효과는 간호사이미지가 0.76($p<.001$)으로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 감성지능 0.14($p=.031$) 순으로 나타났고 이들 변인들은 간호전문직관을 76% 설명하였다. 둘째, 직업가치관에 간호사이미지는 0.36($p<.001$), 감성지능은 0.48($p<.001$)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들 변인은 직업가치관을 52% 설명하였다. 그리고 1학년과 4학년 학년을 조절변수로 하는 다중집단 조절효과에서 간호사이미지와 직업가치관의 경로계수가 집단간 차이를 보여 부분조절효과가 있었다. 따라서 간호전문직관을 잘 형성하기 위해서는 감성지능 향상 훈련과 긍정적인 간호사이미지를 갖게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며 긍정적인 사회적 인식이 향상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is structural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emotional intelligence, professional values, and nurse image on nursing professionalism among nursing students. The study subjects were 349 first- and fourth-year nursing students at a university in C or G city. Data was collected from March 27 to April 14, 2023, and analyzed using SPSS/WIN 23.0 and AMOS 23.0. Results, the variables found to influence nurse professionalism were nurse image 0.76 ($p<.001$) and emotional intelligence 0.14 ($p=.031$), which had an explanatory power of 76%. In addition, nurse image 0.36($p<.001$) and emotional intelligence 0.48 ($p<.001$) influenced professional values with an explanatory power of 52%. A partial moderating effect was detected as the path coefficients of nurse image and professional values differed in the first and fourth years. Therefore, to achieve good nursing professionalism, efforts should be made to improve emotional intelligence, develop and apply programs that create a positive nurse image, and improve positive social awareness.

Keywords : Nursing, Emotional Intelligence, Occupational Values, Nurse Image, Nursing Professionalism

*Corresponding Author : Hyeon Jeong Ju(Kaya Univ.)

email: joo97964@naver.com

Received December 13, 2023

Accepted March 8, 2024

Revised January 8, 2024

Published March 31, 2024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전문직관은 전문직으로서의 간호업무에 대한 견해와 간호사에 대한 신념, 관념 및 인상의 총합으로 간호 직업에 의식적인 견해라고 할 수 있다[1]. 올바른 간호전문직관은 간호에 긍정적인 신념과 긍지를 가지고 간호업무를 가치 있는 일로 여기며[2], 간호직무에 대한 만족과 의의, 간호행동에 대한 기준 또는 평가 틀을 제공해 준다[3]. 이러한 간호전문직관은 간호교육을 통해 형성되기 시작하여 실무경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달하므로[4], 간호사로서 첫걸음을 시작하는 간호대학생들에게 올바른 간호전문직관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간호직은 다양한 상황에서 여러 사람들과 관계속에서 효율적인 대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직종으로, 주된 능력이면서 간호대학생에게도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는 것이 감성지능[5]이다. 감성지능이란 인간의 심리적인 성향 중 긍정적 감정 성향[6]으로 자신의 감성을 잘 조절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7]. 이는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 뿐만 아니라 타인의 감성에 대한 변화를 인지하여 이해하고 잘 대처함을 말한다. 감성지능은 대인관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갈등상황을 긍정적으로 해결하고 대처하는 능력으로 간호전문직관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8]. 간호대학생은 예비간호사로서 임상에서 환자나 보호자, 직장 동료 등과 원활한 소통과 관계 형성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고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하는 감성지능을 대학시기에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9].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은 직업가치관과 간호사이미지를 높이는 것과 함께 간호전문직관 확립에 중요한 요인으로 사료된다.

간호사라는 직업은 임상에서 생명을 직접 다루는 일을 시행하므로 올바른 직업가치관 확립을 갖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10]. 직업가치관이란 직업적인 특성 중에서 본인이 가치를 두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개인이 직업을 통해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 및 실현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11]. 선행연구에서 높은 수준의 직업가치관을 지닌 간호사일수록 역할변화에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12], 간호 직업에 대한 갈등이 적으며, 간호업무수행능력 및 조직몰입도가 높다고 하였다[13]. 그러나 이러한 직업가치관은 사회적 환경이나, 문화적 배경에 영향을 받으며 시대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고[14], 대학생은 직

업가치관이 불안정한 시기이며[15], 전공교육과 임상실습 등을 경험하면서 직업가치관의 혼란을 경험할 수 있다[16]. 따라서 간호대학생 시기의 올바른 직업가치관 확립은 전문적 간호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최근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환자의 건강 회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간호사의 모습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알려지면서 긍정적 이미지로 변화하고 있다. 긍정적 간호사이미지는 간호업무에 대한 가치와 자부심이 높아져 본인이 가치를 두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업가치관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영향요인으로는 간호사이미지,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 전문직자아개념 등이 있고[4,17,18], 그 중 간호사이미지는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을 예측하는 주요변수로 보고되고 있다[17]. 간호사이미지는 간호사에 대해 갖는 신념, 생각, 인상의 집합체[19]로 긍정적일수록 직업정체성을 내면화하고 발달시키는 과정인 전문직사회화가 높아 예비간호사인 간호대학생에게는 중요한 개념이다[20]. 그러나 여전히 간호사이미지에 대해 힘들고 고된 직업이며 단순히 의사 보조역할 정도로 인식되어 전문직으로 충분히 인정받지 못한다는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존재하고 있다[21]. 간호대학생이 갖는 간호사이미지에 따라서 간호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정립에 영향을 주고 전문직사회화를 증진시켜 간호사 역할 수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간호대학생에게 긍정적인 간호사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17]. 미래에 간호사가 될 간호대학생이 긍정적인 간호사이미지가 형성된다면 임상에서의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것으로 생각된다[13]. 따라서 간호대학생이 교육 및 실습을 통해 간호사로서 정체성을 확고하게 정립하기 위해서는 간호사이미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지금까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선행연구에는 소명의식, 간호사이미지, 전공만족도, 자기효능감이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 연구[22], 전공만족도, 직업가치관, 그것이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 연구[23] 같은 영향요인 연구나, 간호대생이 인지하는 간호전문직관, 간호사이미지, 간호전문직업성 핵심요소 간 관계 연구[24], 감성지능과 대학생활적응 및 간호전문직관 관계 연구[25], 포스트코로나시대의 간호대학생이 지각하는 간호전문직관 연구[26] 같은 관계조사 연구들이었다. 학년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연구는 졸업학년 간호학생들의 간호전문직관 영향요인 연구[5], 간호학과 신입생의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연구[11] 정도로 제

한적이었다. 그러나 1. 2학년이 3.4학년 학생들보다 간호전문직관이 더 높다는 연구[24]와 4년제 대학과 3년제 대학 졸업생들의 간호전문직관 차이를 제시한 연구[17]를 보면 각 학년별로 간호전문직관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간호학과 교육과정에 따른 학년별 간호전문직관의 차이 즉 신입생일때의 간호전문직관과 졸업학년인 4학년 간호학생들의 간호전문직관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어떤 변수가 간호학생들의 간호전문직관 형성에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는지, 특히 신입생때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며, 4년의 간호교육을 거의 마친 졸업시점에서의 형성된 간호전문직관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통해 올바른 간호전문직관 형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감성지능, 직업가치관, 간호사이미지가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신입생인 1학년과 졸업학년인 4학년을 대상으로 두 집단간 조절효과를 통해 간호전문직관 영향요인을 확인함으로써 학생들의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을 형성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을 설명하기 위해서 감성지능, 직업가치관, 간호사이미지를 선정하여 이 변인들 간의 구조모형 검증연구이다. 또한 간호대학생 1학년과 4학년 집단을 통해 학년에 대한 조절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 모형의 가설은 6개이며 다음과 같다.

- 간호전문직관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 가설 1. 대상자의 간호사이미지는 간호전문직관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 대상자의 직업가치관은 간호전문직관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3. 대상자의 감성지능은 간호전문직관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직업가치관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 가설 4. 대상자의 간호사이미지는 직업가치관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5. 대상자의 감성지능은 직업가치관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간호사이미지를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 가설 6. 대상자의 감성지능은 간호사이미지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감성지능, 직업가치관, 간호사이미지, 간호전문직관 정도를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감성지능, 직업가치관, 간호사이미지, 간호전문직관과의 관계를 파악한다
- 3) 측정모형의 적합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고 가설적 모형의 경로계수를 확인한다.
- 4) 1학년 집단과 4학년 집단의 측정동일성 확인 후 집단별 경로분석을 통한 조절효과를 검증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직업가치관, 간호사이미지가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와 경로계수를 검증하는 구조모형 검증연구이다. 또한 학년을 조절변수로 하여 간호대학생 1학년과 4학년 집단간 차이를 통해 조절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 대상자는 C시의 1개 대학과 G시의 1개 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본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한 자이다. 구조방정식 모형에 요구되는 대상자 수는 최대우도법에 적합한 표본크기 150~400명에 기반을 두고, 탈락율 10%와 1학년과 4학년 집단 분석을 고려하여 400명을 넘지 않도록 총 380명으로 자료수집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349부(91.8%)를 최종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2.3 연구 도구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로 감성지능 16문항, 직업가치관 8문항, 간호사이미지 20문항, 간호전문직관 29문항, 일반적 특성 6문항 총 7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도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3.1 감성지능

감성지능은 Wong과 Law[6]가 개발한 WLEIS(Wong and Law Emotional Intelligence Scale) 도구를 성지영[27]이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자기감성이해, 타인감성이해, 감성조절, 감성활용 각각 4문항으로 총 16문항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감성지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0.87이었고, 성지영[27]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0.89,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0.90이었다.

2.3.2 직업가치관

직업 가치관은 안강현과 이용환[28]이 개발한 도구를 한예정[29]이 국내 대학생의 직업가치관 유형을 재분류하여 제시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내재적 가치 4개 문항, 외재적 가치 4개 문항으로 총 8개 문항이며, ‘전혀 아니다’를 1점 ‘매우그렇다’를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직업 가치관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한예정[29]의 연구에서 외재적 가치의 Cronbach’s α =.80, 내재적 가치 Cronbach’s α =.7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79 이었다.

2.3.3 간호사이미지

간호사이미지는 강혜영 등[30]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전문적 이미지, 전통적 이미지 각각 6문항, 간호직 전망 3문항, 사회적 이미지 5문항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사 이미지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강혜영 등[30]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94이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95이었다.

2.3.4 간호전문직관

간호전문직관 도구는 윤은자 등[1]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간호전문성 5문항, 전문직자아개념 9문항, 간호의 독자성 3문항, 사회적 인식 8문항, 간호실무 역할 4문항 총 29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간호 독자성’은 역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그렇다’ 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긍정적으로 확립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윤은자 등[1]의 연구에서 Chronbach’s α =.92, 본 연구의 신뢰도 Chronbach’s α =.93이었다.

2.4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K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 (KAYA IRB 23-07)후 C시와 G시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2023년 3월 27일부터 4월 14일까지 시행하였다. 자료 수집은 대학책임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대학 절차에 따라 승인후 진행되었다. 연구 목적과 방법에 대해 대상자에게 설명하고 동의한 경우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지는 약 15~20분정도 소요되었으며 응답 후 누락에 대해 검토한 후 회수하고 연구에 참여자에게는 감사표시로 소정의 선물을 하였다.

2.5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프로그램과 AMOS 23.0을 이용하였고 자료분석을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서술적 통계, 도구 신뢰도는 Cronbach’s α ,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efficient로 산출하였다.
- 2) 확인적 요인분석은 요인부하량과 개념신뢰도, 분산 추출지수를 검증하여, 개념타당성, 판별타당성, 법칙타당성을 검증하는 구조모형의 2단계 접근법에 의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 3)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 검증은 절대적합지수인 χ^2 검증, CMIN/DF, 기초부합지수(GFI, goodness of fit index), 수정부합지수(AGFI, 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표준적합지수(NFI, normed fit index), 표준적합지수(TL, ITuikert-lewis index), 상대적합 지수(CFI, comparative fit index), 표준화 평균제곱잔차계급근(SRMR, Standardized root mean-square residual), 근사오차평균자승의 이중근(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이용하였다.
- 4) 1학년 간호학생과 4학년 간호학생에 대한 간호전문직관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학년을 조절변수로 하는 다중집단분석을 사용하였다

2.6 윤리적 고려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대상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직접 서면 동의서를 받고 진행하였다. 서면동의를 한 이후라도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불이익은 절대 없음을 설명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일련번호로 표기했으며 이름, 학번 등 대상자를 식별할 수 있는 자료는 수집하지 않았고 연구자 외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잠금장치를 이용하여 보관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성별은 남자 72명(20.6%), 여자 277명(79.4%)이며, 연령은 18세 108명(30.9%), 19~20세 59명(16.9%), 21~22세이하 111명(31.8%) 23세이상 71명(20.4%)이었다. 학년은 1학년 175명(50.1%), 4학년 174명(49.9%)이었고, 전공만족도는 만족 228명(65.3%) 보통 112명(32.1%), 불만족 9명(2.6%)이었다. 환경변화 적응 정도는 잘 적응함 260명(74.5%), 보통 74명(21.2%), 잘 적응못함 15명(4.3%)으로 나타났으며, 간호학과 선택동기는 취업률이 높아서

135명(38.7%), 간호사가 되고 싶어서 90명(25.8%), 부모님 권유로 40명(11.5%), 적성에 맞아서 40명(11.5%), 전문직이라서 36명(10.2%), 성적을 고려해서 8명(2.3%) 순으로 나타났다.

3.2 주요변인의 서술적 통계 및 다중공선성

대상자의 감성지능의 평균평점과 표준편차는 3.87 ± 0.56 이고, 직업가치관은 4.24 ± 0.51 , 간호사이미지는 4.24 ± 0.56 , 간호전문직관은 4.07 ± 0.50 로 나타났다. 하위 영역을 살펴보면 감성지능에서는 자기감성이해 4.11 ± 0.69 , 타인감성이해 4.03 ± 0.70 , 감성조절 3.63 ± 0.79 , 감성 활용 3.70 ± 0.81 이었으며, 직업가치관에서는 내재적가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standard factor loading

Variables		(Mean±SD) /item	Skewness	Kurtosis	tolerance	VIF	standard factor loading	SE	CCR	AVE
Emotional Intelligence	Total	3.87±0.56	-0.01	-0.19	0.77	1.31				
	Understanding Self-Sensitivity	4.11±0.69	-0.51	0.33	0.59	1.68	0.73	0.22	0.84	0.57
	Understanding Other People's Sensibilities	4.03±0.70	-0.31	-0.64	0.71	1.40	0.57	0.33		
	Emotion Control	3.63±0.79	-0.05	-0.33	0.58	1.73	0.68	0.33		
	Utilize Emotions	3.70±0.81	-0.39	0.21	0.68	1.42	0.61	0.42		
Occupational Values	Total	4.24±0.51	-0.27	0.30	0.72	1.38				
	Intrinsic Value	4.17±0.62	-0.08	-0.32	0.62	1.62	0.77	0.15	0.84	0.73
	Extrinsic Value	4.30±0.57	-0.57	-0.02	0.69	1.44	0.60	0.21		
Nurse Image	Total	4.24±0.56	-0.59	0.35	0.76	1.31				
	Professional Image	4.52±0.52	-0.83	0.27	0.30	3.34	0.85	0.08	0.95	0.81
	Traditional Image	4.28±0.69	-0.94	1.25	0.28	3.52	0.88	0.11		
	Nursing Job Outlook	3.81±0.75	-0.01	-0.70	0.48	2.07	0.67	0.31		
	Social Image	4.12±0.68	-0.39	-0.45	0.29	3.40	0.86	0.12		
Nursing Professionalism	Total	4.07±0.50	-0.10	-0.49						
	Professional Self-concept	4.32±0.53	-0.28	-0.83	0.34	2.97	0.85	0.08	0.95	0.81
	Nursing Expertise	4.28±0.57	-0.45	-0.11	0.22	4.54	0.93	0.04		
	Social Awareness	3.81±0.69	-0.02	-0.45	0.42	2.41	0.73	0.22		
	Nursing Practice Role	4.33±0.61	-0.45	-0.55	0.23	4.27	0.90	0.07		
	Nursing Independence	3.30±1.06	-0.63	-0.26	0.95	1.05	0.42	0.31		

* VIF: Variance Inflation Factor, SE: Standard error, CCR: Composite Construct Reliability, AVE: Average Variation Extracted

치 4.17 ± 0.62 , 외재적가치 4.30 ± 0.57 이었다. 간호사 이미지에서는 전문적이미지 4.52 ± 0.52 , 전통적이미지 4.28 ± 0.69 , 사회적전망 3.82 ± 0.75 , 사회적이미지 4.12 ± 0.68 이었다. 간호전문직관에서는 전문직자아개념 4.32 ± 0.53 , 간호전문성 4.28 ± 0.57 , 사회적인식 3.81 ± 0.69 , 간호실무역할 4.33 ± 0.61 , 간호독자성 3.30 ± 1.06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의 왜도와 첨도는 절대값이 ± 1.96 범위로 정규분포의 가정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며, 측정변수간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분산팽창지수(VIF)가 10을 넘는 변수가 없었으며 공차한계도 0.1이하인 변수가 없어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3.3 측정모형의 검증

3.3.1 측정모형의 신뢰성과 개념타당성

대상자의 감성지능, 직업가치관, 간호사이미지, 간호전문직관 변인에 대해 확인요인분석과 신뢰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간호전문직관의 하위영역 중 “간호독자성”의 표준화 계수가 0.5보다 낮아 제거를 고려하였으나, 내용면에서 중요한 변수이고 개념신뢰도와 분산추출지수가 임계치 이상을 보여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외 다른 요인들의 요인부하량은 모두 0.5 이상이고, 모든 요인에서 개념신뢰도(Composite construct reliability, CCR) 0.7이상,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tion extracted, AVE) 지수가 0.5이상을 보여 신뢰성과 개념타당성은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다(Table 1).

3.3.2 측정모형의 판별타당성과 법칙타당성

변인 간의 판별타당성은 각 요인의 다중 상관계수(r^2)의 값(0.38~0.76)이 대각선의 분산추출지수(0.57~0.81)보다 모두 작아 요인 간 판별타당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간호전문직관을 중심으로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간호사 이미지는 $r=0.76(p<0.01)$ 으로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직업가치관 $r=0.46(p<0.01)$, 감성지능 $r=0.44(p<0.01)$ 는 중간정도의 정적 상관관계 나타내 법칙타당성을 확보했음을 알 수 있다(Table 2).

3.4 가설적 모형의 검증

1단계로 측정모형의 적합도와 개념타당성, 판별타당성, 법칙타당성을 확인한 후 2단계로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와 경로 유의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3.4.1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 검증

최대우도법(ML : Maximun Likelihood Estimation)을 통해 요인간 상관행렬로 분석한 모형 적합도 결과 χ^2 값은 227.70(df=84, $p<.001$), CMIN/DF(χ^2 /df)=2.71, GFI=0.91, AGFI=0.88, SRMR=0.04, NFI=0.92, TLI=0.93, CFI=0.94, RMSEA=0.07로 나타났다. 본 연구모형에 대한 적합도는 χ^2 값은 227.70($p<.001$)으로 가설적 모형이 기각되었으나 표본수에 덜 민감한 다른 적합도 지수를 확인한 결과, CMIN/DF는 5.0이하이면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는데 본 연구에서는 CMIN/DF(χ^2 /df)=2.71로 좋은 적합도를 나타냈다, GFI=0.91, NFI=0.92, TLI=0.93, CFI=0.94는 좋은 적합도 기준인 0.90 이상 기준을 충족하였고, AGFI=0.88은 좋은 적합도 기준 0.85이상의 기준을 충족하였다. SRMR과 RMSEA의 좋은 적합도는 0.05 이하, 양호한 적합도는 0.08 이하로 판단할 수 있는데 본 연구모형에서는 SRMR=0.04로 좋은 적합도를 나타냈고, RMSEA=0.07로 양호한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여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가설적 모형은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다(Table 3).

Table 2. Correaltion Matrix Table

	Emotional Intelligence	Occupational Values	Nurse Image	Nursing Professionalism
Emotional Intelligence	0.57			
Occupational Values	0.44 ($<.001$)	0.73		
Nurse Image	0.38 ($<.001$)	0.44 ($<.001$)	0.81	
Nursing Professionalism	0.44 ($<.001$)	0.46 ($<.001$)	0.76 ($<.001$)	0.81

* The diagonal matrix for each factor is the variance extraction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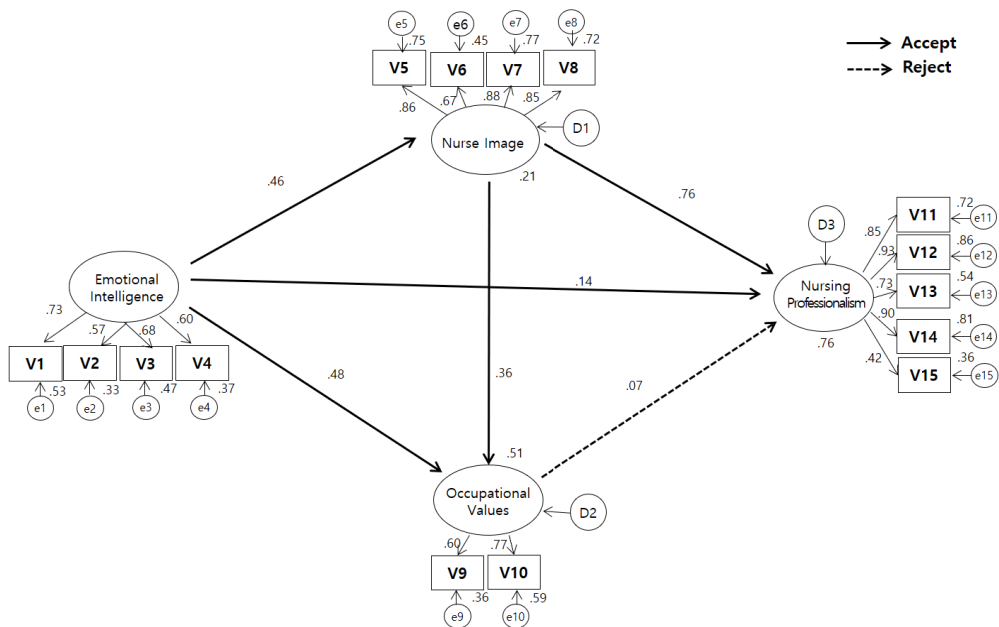
Table 3. Hypothetical Mode of Fitness

Model	χ^2 (<i>p</i>)	DF	CMIN/DF	GFI	AGFI	SRMR	NFI	TLI	CFI	RMSEA
criteria			≤.5	≥.90	≥.85	≤.08	≥.90	≥.90	≥.90	≤.08
Hypothetica Mode	227.70 (<.001)	84	2.71	0.91	0.88	0.04	0.92	0.93	0.94	0.07

Table 4. Hypothetical Mode of 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 Standardized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Pathway hypothesis	Hypothetical			SMC	Direct Effect (<i>p</i>)	Indirect Effect (<i>p</i>)	Total Effect (<i>p</i>)
	Estimates	CR(t)	<i>p</i>				
Nursing Professionalism ←	Nurse Image	0.76	12.36	<.001	0.76	0.02(.455)	0.78(.010)
	Occupational Values	0.07	0.88	.379			0.07(.456)
	Emotional Intelligence	0.14	2.16	.031		0.39(.010)	0.53(.010)
Occupational Values ←	Nurse Image	0.36	4.71	<.001	0.52		0.36(.010)
	Emotional Intelligence	0.48	5.27	<.001		0.16(.010)	0.64(.010)
Nurse Image ←	Emotional Intelligence	0.46	6.00	<.001	0.21		0.46(.010)

* SE: Standard error, CR: Critical Ratio SMC: Squared Multiple Correlation



V1: Understanding Self-Sensitivity, V2: Understanding Other People's Sensibilities V3: Emotion Control, V4: Utilize Em
 V5: Professional Image, V6: Traditional Image, V7: Nursing Job Outlook, V8: Social Image, V9: Intrinsic Value, V10: Ex
 Value, V11: Professional Self-concept, V12: Nursing Expertise, V13: Social Awareness, V14: Nursing Practice Role
 Nursing Independence

Fig. 1. Path diagram for Hypothetical model

3.4.2 가설적 모형의 모수치 추정

첫째, 간호전문직관과 간호사이미지 사이의 경로계수는 0.76($p < .001$)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간호전문직관과 직업가치관 사이의 경로계수는 0.07($p = .379$)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호전문직관과 감성지능 사이의 경로계수는 0.14($p = .031$)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간호사이미지, 직업가치관, 감성지능의 설명력인 다중상관자승(SMC: Squared Multiple Correlation)은 76%이었다.

둘째, 직업가치관과 간호사이미지 사이의 경로계수는 0.36($p < .001$)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직업가치관과 감성지능 사이의 경로계수는 .48($p < .001$)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가치관에 대한 간호사이미지, 감성지능의 설명력인 다중상관자승은 52%이었다.

셋째, 간호사이미지와 감성지능 사이의 경로계수는 0.46($p < .001$)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호사이미지에 대한 감성지능의 설명력인 다중상관자승은 21%이었다(Table 4, Fig. 1).

3.4.3 직접, 간접, 총효과

가설적 모형에 대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를 파악한 결과,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직접효과는 간호사이미지가 0.76($p = .010$)으로 유의하였고, 간호사이미지의 간접효과는 0.02($p = .455$)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총효과에서 0.78($p = .010$) 유의하여 완전매개함을 알 수 있었다.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감성지능의 직접효과는 0.14($p = .097$)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간접효과 0.39($p = .010$)와 총효과 0.53($p = .010$)는 유의함을 알 수 있었다. 직업가치관에 대한 직접효과는 감성지능 0.48($p = .010$), 간호사이미지 0.36($p = .010$) 순으로 나타났고, 감성지능은 간접효과 0.16($p = .010$)와 총효과 0.64($p = .010$)도 유의하여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간호사이미지

에 대한 감성지능의 직접효과도 0.47($p = .010$)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었다(Table 4).

3.5 다중집단 구조모형 분석

3.5.1 다중집단 확인요인분석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 1학년과 4학년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측정동일성 검증을 위해 다중집단 확인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유모형은 χ^2 값은 331.37 df=168이며 2단계 요인부하량(λ) 제약모형의 χ^2 값은 342.81, df=179로 χ^2 의 차이는 11.44, df의 차이는 11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측정 동일성을 만족하였다. 그러나 3단계 공분산(ϕ) 제약모형의 χ^2 값은 360.42 df=185로 χ^2 의 차이는 29.05, df의 차이는 17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4단계 요인부하량(λ)과 공분산(ϕ) 제약모형의 χ^2 값은 362.63, df=186로 χ^2 의 차이는 31.26 df의 차이는 18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5단계 요인부하량(λ), 공분산(ϕ), 오차분산(θ) 제약모형의 χ^2 값은 395.14, df=204로 χ^2 의 차이는 67.77, df의 차이는 36으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측정동일성을 만족하지 않았다. 제약이 많아질수록 측정 동일성은 충족하기 어렵기에 일반적으로 1단계의 측정 동일성이 만족하면 두 집단은 측정 동일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두 집단은 측정도구인 측정변인들을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다음 단계인 집단별 경로분석을 통한 조절효과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Table 5).

3.5.2 다중집단 조절효과 검증

간호대학생 1학년과 4학년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1학년 집단에서는 간호사이미지($\beta = 0.76, p < .001$)는 간호전문직관에 정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직업가치관

Table 5. Free model and constrained model Measurement equality comparison

Model	$\chi^2 / (p)$	DF	GFI	CFI	TLI	RMSEA	$\Delta\chi^2/df$	Sig
Model 1 (Non-Restrict)	331.37 / (<.001)	168	0.88	0.94	0.92	0.06		
Model 2 (λ Restrict)	342.81 / (<.001)	179	0.88	0.94	0.93	0.06	11.44/11	Not significant
Model 3 (ϕ Restrict)	36.42 / (<.001)	185	0.87	0.93	0.92	0.06	29.05/17	yes
Model 4 (λ, ϕ Restrict)	362.63 / (<.001)	186	0.87	0.93	0.92	0.06	31.26/18	yes
Model 5 (λ, ϕ, θ Restrict)	395.14 / (<.001)	204	0.86	0.93	0.92	0.06	63.77/36	yes

* λ 요인부하량, ϕ 공분산, θ 오차분산

Table 6. Comparison of Measurement Identities Between Free and Constrained Models

Pathway hypothesis		Grade 1(n=175)			Grade 4(n=174)			Sig
		Estimates	CR(t)	Result	Estimates	CR(t)	Result	CR
Nursing Professionalism	← Nurse Image	0.76	6.71 (.001)	Accept	0.74	3.41 (.001)	Accept	-1.42
	← Occupational Values	0.04	0.32 (.753)	Reject	0.10	0.75 (.452)	Reject	0.38
	← Emotional Intelligence	0.11	1.35 (.177)	Reject	0.17	1.44 (.150)	Reject	0.13
Occupational Values	← Nurse Image	0.61	5.33 (.001)	Accept	0.20	1.78 (.074)	Reject	-3.31
	← Emotional Intelligence	0.25	2.18 (.030)	Accept	0.67	4.89 (.001)	Accept	1.56
Nurse Image	← Emotional Intelligence	0.42	3.45 (.001)	Accept	0.51	5.12 (.001)	Accept	0.55

($\beta=0.04$, $p=.753$), 감성지능($\beta=0.11$, $p=.177$)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가치관에서는 간호사이미지($\beta=0.61$, $p<.001$)와 감성지능($\beta=0.25$, $p=.030$) 모두 정적으로 유의하였고, 간호사이미지에 대한 감성지능($\beta=0.42$, $p<.001$)도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4학년 집단에서는 간호사이미지($\beta=0.74$, $p<.001$)는 간호전문직관에 정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직업가치관($\beta=0.10$, $p=.452$)과 감성지능($\beta=0.17$, $p=.150$)은 간호전문직관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두 집단이 동일하였으나 모수치간 쌍대비교(pairwise parameter comparison)한 결과 집단간 차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직업가치관에 대한 간호사이미지($\beta=0.20$, $p=.074$)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1학년 집단과 차이를 보였으며, 모수치간 쌍대비교한 결과 $CR=-3.31$ 로 절대값 기준 1.96 이상임으로 두 집단간 차이가 유의하여 조절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직업가치관에 대한 감성지능($\beta=0.67$, $p<.001$)은 정적으로 유의하였고, 간호사이미지에 감성지능($\beta=0.51$, $p<.001$)도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수치간 쌍대비교한 결과 두 집단간 차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1학년 집단에서는 간호사이미지가 직업가치관에 영향을 미쳤고, 4학년 집단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두 집단간 직업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었다 (Table 6).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감성지능, 간호사이미지, 직업가치관이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하기 위한 구조모형분석 연구로서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감성지능, 직업가치관, 간호사이미지, 간호전문직관 변수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개념타당도, 판별타당도, 법칙타당도를 확보하였음을 알 수 있었고,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가 모형을 수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검증 결과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직접효과는 간호사이미지($\beta=.76$)가 가장 큰 정적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감성지능($\beta=.14$) 순으로 나타났고, 직업가치관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먼저 간호사이미지가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장영미[11]의 연구에서 간호사이미지($\beta=.76$)가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유사하였고, 함연숙 외[5] 연구에서 간호사이미지($\beta=.46$)가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유사하였으며, 이규은, 서임선[22]의 연구에서 간호사이미지($\beta=.26$)가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는 간호사이미지가 간호전문직관 형성에 주요 요인임을 알 수 있는 결과로 간호교육과 임상실습을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전문적이면서도 헌신하는 간호사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또한 최근 언론을 통해 COVID-19가 전파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환자를 지키기 위해 헌신을 다하는 간호사의 모습과 이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인식 등 간호사에 대한 긍정적인 사례를 간호대학생의 교육에서 제시해주는 것은 간호사이미지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긍정적인 간호사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 임상실습 체험이나 프로그램 운영, 교육과정에서 긍정적 사례 소개, 사회적 이미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홍보 등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감성지능이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다는 연구결과는 노준희, 김우영[26]의 연구에서 감성지능($\beta = .74$)이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다는 결과와 유사하였고, 김가야[31]의 연구에서 감성지능($\beta = .46$)이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다는 결과와 유사하였으며, 전민경, 한미영[32]의 연구에서도 감성지능($\beta = .29$)이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다는 결과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간호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간호전문직관 차이와 영향요인을 조사한 강경자 외[33]의 연구에서는 여학생에서는 감성지능($\beta = .18$)이 유의하였으나 남학생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어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감성지능은 환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환자 요구를 알아차리는 돌봄의 기본요소로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돌봄, 공감, 감정을 표현하는 영역에서 더 취약하다는 연구결과[32,34]를 잘 뒷받침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할 수 있는 감성지능 향상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며 특히 성별에 따른 맞춤형 강화 프로그램 제공 및 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감성지능은 갈등에 대한 긍정적인 해결, 직무에 대한 스트레스 감소 등과 관련되어 있어[35] 간호사로서 현장 적응력 증진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해 질적 간호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질적 간호는 간호업무에 대한 가치를 통해 직무만족이 향상되고 간호행동에 대한 기준인 간호전문직관으로 형성되기에 감성지능을 향상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셋째, 직업가치관이 간호전문직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는 장영미[10]의 연구에서는 직업가치관($\beta = .13$)이 간호전문직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양승경 외[23]의 연구에서 직업가치관($\beta = .43$)이 간호전문직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본 연구결과와 상이하였다. 직업가치관은 간호전문직관과 함께 취업준비행동, 진로결정, 전공만족도, 직무몰입 등에 미치는 영향 연구가 많았고, 직업가치관이 직접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연구는 적어 비교하기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장영미[10]와 양승경 외[23]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결과와 다른 결과를 보여 간호학과 학생들의 직업가치관에 대한 심층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학년별 직업가치관의 차이가 무엇인지, 간호교육을 통해 어떤 변화가 초래되는지, 학생 성격이나 성향에 따라 전문직에 대한 직업가치관이 어떠한지, 시대적으로 어떠한 가치가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주는지 등 연구대상자의 특성과 간호전문직에 대한 인식을 고려한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간호학과 1학년과 4학년 학년을 조절변수로 하

는 다중집단분석에서 간호사이미지가 직업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1학년에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4학년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이는 모수치간 쌍대 비교(pairwise parameter comparison)를 통해 유의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학년간 특성에 의한 조절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특히 1학년은 간호사이미지가 직업가치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4학년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 두 집단간 차이를 명확히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는 간호학과 1학년때 형성되었던 사고방식, 가치기준이 간호교육과 실제 임상실습을 경험하면서 간호사이미지가 변화되었고 이런 변화가 직업가치관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간호사이미지에 대한 연구에서 신입생이나 1, 2학년때 간호사이미지가 높은 경우[10,17,20]도 있고, 졸업학년이나 3, 4학년때 간호사 이미지 높은[24] 경우도 있으며, 중간정도[13,22]로 나타난 경우도 있어 추후 학년별 간호사이미지에 분석과 영향요인에 대한 반복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직업가치관이 간호교육을 받으면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간호교육과 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이 직업가치관에 어떤 차이를 주는 지, 성별이나 성격에 따라 직업가치관의 선호도가 어떻게 다른지 등에 대해 심층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로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을 잘 형성하기 위해서는 간호사이미지와 감성지능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특히 간호사이미지는 간호전문직관 영향요인 중 가장 큰 요인으로 1학년 때부터 교육과정이나 비교과 프로그램, 임상체험교육 등을 통해 전문직업인으로서의 간호사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하는 것은 간호학계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또한 간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이미지를 함께 키워나가야 할 것이며, 간호사로서 중요한 능력인 감성지능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개발 및 훈련 등을 통해 올바른 간호전문직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1학년과 4학년의 직업가치관 영향요인의 차이를 통해 학년별 특성을 고려한 분석과 접근전략이 필요하리라 생각되며, 간호사이미지나 감성지능의 하위영역을 조절변수로 하는 다중집단 조절효과의 후속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연구의 제한점으로 본 연구 대상이 2개 대학의 1학년과 4학년에 국한되어 있어 표본의 대표성이 부족함으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거나 확대 해석함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예측하기 위해 가설적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가설적 경로모형의 모수치와 유효성을 검증한 결과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직접효과는 간호사이미지가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감성지능 순으로 나타났고 이들 변인들은 간호전문직관을 76% 설명하였다. 간호사이미지와 감성지능은 직업가치관에 직접 효과가 있었으며, 이들 변인들은 직업가치관을 52% 설명하였고, 감성지능은 간호사이미지에 직접 효과가 있었으며 간호사이미지에 대한 21%의 설명력 있었다. 또한 1학년과 4학년 집단을 조절변수로 하는 다중집단 조절효과에서 간호사이미지와 직업가치관의 경로계수가 집단간 차이가 있어 부분조절효과가 있었고, 이들 변인들의 설명력에서도 1학년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간호사이미지를 긍정적이고 자부심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모색과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갈등과 스트레스 해결 방안 프로그램이나 감정조절 훈련 프로그램 등을 통해 감성지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지원과 개인별 상황에 따른 적절한 훈련 및 지속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간호대학생의 간호사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과 간호직에 대한 자부심, 보람된 간호활동 체험 등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2. 집단간 조절변수로 성별, 성향, 나이 등 간호대학생의 다른 특성을 도입해서 반복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1] E. J. Yeun, Y. M. Kwon, and O. H. Ahn, "Development of a Nursing Professional Value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35, No. 6, pp. 1091-1100, October 2005.
DOI: <https://doi.org/10.4040/ikan.005.35.6.1091>
- [2] M. O. Lee, Y. K. Go, E. A. Kim, J. J. Nam, K. H. Lee, S. H. Lee, J. Y. Lee, J. Min, and E. Y. Hong et al. "Introduction to Nursing. 6th," Hyunmoonsa, Seoul, 2023.
- [3] D. Weis, and M. J. Schank, "Toward Building an International Consensus in Professional Values," *Nurse Education Today*. Vol. 17, No. 5, pp. 366-369, October 1997.
DOI: [https://doi.org/10.1016/s0260-6917\(97\)80096-2](https://doi.org/10.1016/s0260-6917(97)80096-2)
- [4] Y. M. Kwon, and E. J. Yeun, "Correlation Study on Nursing Professional Values, Department Satisfaction, Sociality, Self-Esteem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Vol. 13, No. 3, pp. 285-292, September 2007.
- [5] O. S. Lee, and M. O. Gu,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Communication Skill, Clinical Competence & Clinical Practice Stres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an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4, No. 6, pp. 2749-2759, 2013.
DOI: <https://doi.org/10.5762/KAIS.2013.14.6.2749>
- [6] C. S. Wong, and K. Law, "The Effects of Leader and Follower Emotional Intelligence on Performance and Attitude: An Exploratory Study," *The Leadership Quarterly*, Vol. 13, No. 3, pp. 243-274, June 2002.
DOI: [https://doi.org/10.1016/S1048-9843\(02\)00099-1](https://doi.org/10.1016/S1048-9843(02)00099-1)
- [7] P. Salovey, and J. D. Mayer,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Vol. 9, No. 3, pp. 185-211, 1990.
DOI: <https://doi.org/10.2190/DUGG-P24E-52WK-6CDG>
- [8] C. Tayler, C. Farver, and J. K. Stoller, "Perspective: Can Emotional Intelligence Training Serves as an Alternative Approach to Teaching Professionalism to Resident?", *Academic Medicine*, Vol. 86, No. 2, pp. 1551-1554, December 2011.
DOI: <https://doi.org/10.1097/ACM.0b013e318235aa76>
- [9] M. S. Ko, "Ego-Resilience and Emotional Intelligence, Stress Coping Strategies &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5, No. 10, pp. 280-291, 2015.
DOI: <https://doi.org/10.5392/JKCA.2015.15.10.280>
- [10] Y. M. Jang, "The Influence of Nursing Image, Job Value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First Yea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Industrial Convergence*, Vol. 27, No. 4, pp. 1-27, 2019.
DOI: <https://doi.org/10.22678/JIC.2019.17.3.031>
- [11] S. K. Jeon, and S. E. Lee, "A Study on Work Values and Job Satisfaction of Korea Air Force Pilot,"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Vol. 31, No. 4, pp. 25-42, 2012.
- [12] J. K. Kim, "Subjectivity of Job Values among the Nursing Students Experienced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the Scientific Study of Subjectivity*, Vol. 34, pp. 5-25, 2016.
- [13] J. A. Seong, E. Y. Yeom, and Y. S. Do, "Image of nurses and nursing professional values perceived by

-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4, No. 11, pp. 798-809, 2014.
DOI: <https://doi.org/10.5392/JKCA.2014.14.11.798>
- [14] L. Cennamo, and D. Gardner, "Generational Differences in Work Values, Outcomes and Person-Organisation Values Fit,"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Vol. 23, No. 8, pp. 891-906, November 2008.
DOI: <https://doi.org/10.1108/02683940810904385>
- [15] J. Jin, and J. Rounds, "Stability and Change in Work Values: A Meta-Analysis of Longitudinal Studi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 80, No. 2, pp. 326-339, April 2012.
DOI: <https://doi.org/10.1016/j.jvb.2011.10.007>
- [16] H. K. Yang, "The Relationship between Major Satisfaction, Self-Esteem, Work Values of Nursing Students at one University."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 8, No. 1, 2022.
DOI: <https://doi.org/10.17703/JCCT.2022.8.1.219>
- [17] Y. S. Ham, H. S. Kim, I. S. Cho, and J. Y. Lim, "Affecting Factors of Nursing Professionalism Perceived by Seni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7, No. 3, pp. 536-544, December 2011.
- [18] S. Karaoz, "Change in nursing students' perceptions of nursing during their education: the role of the introduction to nursing course in this change," *Nurse Education Today*, Vol. 24, No. 2, pp. 128-135, February 2004.
DOI: <https://doi.org/10.1016/j.nedt.2003.10.010>
- [19] P. A. Kalisch, and B. J. Kalisch, "A Comparative Analysis of Nurse and Physician Characters in the Entertainment Media,"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 11, No. 2, pp. 179-195, March 1986.
DOI: <https://doi.org/10.1111/j.1365-2648.1986.tb01236.x>
- [20] H. S. Jeong, and Y. S. Yang, "Image of Nurses as Perceived by Nursing Students and Image Determina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ublic Health Nursing*, Vol. 24, No. 1, pp. 29-38, March 2010.
- [21] D. L. Han, "Images of good nurses as perceived by nursing college students : A Q-methodological approach"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4, No 1, pp 61-71, February 2018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8.24.1.61>
- [22] K. E. Lee, and I. S. Seo, "The Effects of Calling, Nurse's Image, Satisfaction in Major and Self-Efficacy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8, No. 1, pp. 37-47, February 2022.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22.28.1.37>
- [23] S. K. Yang, Y. J. Yang, and E. J. Koo, "The Effect of Grit, Major Satisfaction, Occupational Value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23, No. 15, pp. 215-224, 2023.
DOI: <https://doi.org/10.22251/ilcci.2023.23.15.215>
- [24] H. H. Cho, and N. H. Kim, "Relationships Among Nursing Professionalism, Nurse Image, and Core Elements of Nursing Professionalism that Nursing Students Perceiv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0, No. 4, pp. 548-557, November 2014.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4.20.4.548>
- [25] K. O. Lee, and H. J. Chae, "The Relationships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College Adjustment and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10, pp. 355-365, 2016.
DOI: <https://doi.org/10.14400/JDC.2016.14.10.355>
- [26] J. H. No, and E. Y. Kim,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Emotional Intelligence, Grit and Nursing Professional Intuition Perceived by Nursing Students in the Post-Corona Era,"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 7, No. 4, pp. 519-526, November 2021.
DOI: <https://doi.org/10.17703/JCCT.2021.7.4.519>
- [27] J. Y. Sung, "A Study on End-of-Life Care Stress, Emotional Intelligence and Ego Resilience of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Busan Catholic University, Busan. 2018.
- [28] K. H. Ahn, and Y. H. Lee, "A Study on the Types of Work Values of the Junior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Vol. 17, No. 1, pp. 1-17, 1998.
- [29] Y. J. Han, "The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gree of Instruction Participation and Major Satisfaction and the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by the Major Selection Motive and their Work Values of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ungsoong University, Busan. 2014.
- [30] H. Y. Kang, M. H. Go, J. J. Yang, and S. M. Kim, "Nurses' Image Perceived by Academic and Vocational High School Teachers in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33, No. 6, pp. 792-801, October 2003.
DOI: <https://doi.org/10.4040/jkan.2003.33.6.792>
- [31] G. Y. Kim, "The Convergence Influence of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nd Emotional Intelligence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 12, No. 2, pp. 63-71, 2022.
DOI: <https://doi.org/10.22156/CS4SMB.2022.12.02.063>
- [32] M. K. Jeon, and M. Y. Han, "The Relationship among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Incivility, Emotional Intelligence,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9, No. 19, pp. 949-964, 2019.
DOI: <https://doi.org/10.22251/ilcci.2019.19.19.949>
- [33] K. J. Kang, S. J. Yu, H. M. Seo, M. S. Park, M. Y. Y. R. Chae, and D. H. Choi, "Factors Influencing Professionalism in Male and Female Student Nurse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0, No. 4, pp. 491-501, November 2014.

DOI: <https://doi.org/10.5977/ikasne.2014.20.4.491>

- [34] A. Stott, "Issues in the Socialisation Process of the Male Student Nurse: Implications for Retention in Undergraduate Nursing Courses," *Nurse Education Today*, Vol. 24, No. 2, pp. 9-97. February 2004.
DOI: <https://doi.org/10.1016/j.nedt.2003.09.005>
- [35] E. Codier, B. M. Kooker, and J. Shultz, "Measuring the emotional intelligence of clinical staff nurses: An approach for improving the clinical care environment," *Nursing Administration Quarterly*, Vol. 32, No. 1, pp. 8-14, January 2008.
DOI: <https://doi.org/10.1097/01.NAQ.0000305942.38816.3b>

주 현 정(Hyeon Jeong Ju)

[정회원]



- 2009년 2월 : 고신대학교 보건학과 (보건학석사)
- 2014년 2월 : 고신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가야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성인간호학, 보건통계학, 역학, 기초간호과학